

“갑자기 달려든 개에 머리가 하얗졌죠”

유기견 주택가 등 출몰 잦아... 산책 시민 위협하거나 물어 상해 입히기도

서귀포시, 2016년 이후 유기견 등 7810마리 포획

“큰 개가 갑자기 달려드니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지난달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의 한 마을에서 산책하던 고모(41)씨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골목길에 앉아 있던 개 한 마리가 고씨를 보고 갑자기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황한 고씨는 황급히 인근에 있는 평상 위로 올라 안전하게 몸을 피한

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씨는 “달려든 개의 크기는 성인 허벅지 정도까지 왔고, 목줄은 채워져 있지 않았다”면서 “개가 사람을 보고 반가워 달려왔을지도 모르지만, 평소 개를 무서워하는 탓에 (달려드는 개가) 꼭 물려고 달려든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큰 개가 달려드니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무작정 주변에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달리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도내 곳곳에서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유기견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어 행정의 깊어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일 서귀포시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반려견이 주민을 물어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다음날인 5일 서귀포경찰서와 함께 사고가 일어났던 주택가를 찾아 해당 반려견을 포획한 뒤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들개를 포함한 유기견 포획 현황은 ▷2016년 1114마리 ▷2017년 2553마리 ▷2018년 3148마리 등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의 995마리가 포획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시민들이 (유기견에게) 물렸거나 위협을 받으면 우선 신고부터 하면서 (포획이) 늘어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기견을 구조·포획하면 우선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고 있다”며 “다만, 유기견이 주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고 이후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오는 10월까지 아프리카에 '여성용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연합회는 현지 소녀들을 돕기 위해 '1인 1후원'을 결정했다.

제주여성들 아프리카 소녀 돕는다 생활개선도연합회 '1인 1후원' 캠페인

1960~1970년대 농촌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틸 뭉쳐 이겨냈던 생활개선회가 아프리카 소녀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옥자)가 오는 10월까지 아프리카에 '여성용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생활개선회는 아프리카 코피아 연구원을 통해 아프리카 소녀들이 여성용품 부족으로 생리기간이 되면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1인 1후원'을 결정했다. 생활개선회는 모든 회원의 동

참을 위해 마을회장이 여성용품 만들기 강사 교육을 이수한 후, 마을회원들에게 여성용품 제작 방법을 전수하는 체계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이며, 마을별 회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제작한 여성용품은 오는 10월 케냐로 보낼 계획이다.

강옥자 생활개선회장은 “어려운 시절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이제는 생활개선회가 기부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스킨스쿠버 40대 女 숨져

8일 오후 3시1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지모(48·여·경기도 안산)씨가 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레저보트를 타고 대평포구 남동쪽 500m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이태윤기자

마을 흠친 50대 女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9일 남의 밭에서 마늘을 흠친 A(56·여)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2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가에 B(65)씨가 건조를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55만원 상당의 마늘을 차량에 신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윤기자



협재해수욕장 물놀이 9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시, 부설주차장 2만여곳 실태 전수조사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7700건 적발

물건적치 사례 비밀비재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 356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용도변경 등 총 7700여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용을 저하로 인한 지역 내 주차난 심화 현상을 완화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등 경미한 사항 6440건, 주차난 심화의 원인이 되는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1269건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본래 기능 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점검을 통해 위법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사랑으로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 1338건 접수

제주시 5월말 기준... 722건은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과 연계해 기존 운영하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App)을 활용하여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요건을 충족할 시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가 신고 대상지로 추가됐다.

개정 운영 이후 5월 말까지 신고제를 통해 총 133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722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요건에 맞지 않아 미부과된 616건에 대해서는 계도장 발송, SMS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석기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은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